

## 2010 교환학생 후기 -University of Northern Iowa

이숙정

Exchange Student. 교환학생. 내가 대학생으로서 꼭 이루고 싶었던 목표 중 하나였다. 대학생이 아니라면 쉽사리 누리지 못할, 이 소중한 기회를 꼭 갖고 싶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철저한 계획을 따라 노력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교환학생 지원을 위해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단연 토익점수와 글로벌 마인드였다. 토플점수를 만들기 위해 학교를 휴학하고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나는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토플수업을 꾸준히 들어가면서 토플공부를 했다. 하지만 막상 학교수업과 토플공부를 병행하려니 스트레스와 피로를 조절하는 것이 꽤 힘들었다. 하지만 교환학생으로 당당히 합격 통보를 받게 된 날, 나는 그 누구보다 고생했던 내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었다.

University of Northern Iowa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 일 처리가 빠른 편이어서 무엇인가를 선택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우편을 통해 학교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었고, E-mail을 통해서는 이 학교를 오기 전에 내가 꼭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상세하게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학교의 친절한 도움이 있었기에 별 어려움 없이 비자문제, 기숙사 계약과 meal plan의 선택, 수강신청 등을 잘 해결할 수 있었다.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기 전까지는 하루하루가 설레이기도 한 반면, 무척 초조하기도 했다. 아마 ‘내가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선택에 대한 후회가 있다면 그게 어느 정도나 될까’ 등의 설레임 반, 걱정 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낯선 땅 미국에 도착했다. 단 한명의 나를 위해 학교의 관계자 분들과 심지어 짐 옮기는 것을 도와줄 다른 국제학생들까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 방학기간 이었던 지라 학교는 조용했고, 개강하기 전까지 일주일의 시간동안을 International Student Orientation에 참가하며 학교에서의 전반적인 생활과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들은 1년의 생활을 함에 있어 참 유용했던 시간이었다.

가을학기에 내가 수강하게 될 4과목의 수업에 들어가던 첫날, 그 동안 내가 겪어 온 수업환경과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말 그대로 문화충격이란 것을 실제로 느끼게 되었다. (사실, 4과목의 수업 모두 나 혼자만 동양인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충격이었다.) 보통 50~60명을 넘나드는 수업이 아닌 20~30명 정도의 소규모 수업형태가 주를 이루었고, 그 안에서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소통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다. 누가 학생이고, 교수인지 모를 자유로운 수업시간. 그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모두 얻어 가는 정말 효율적인 수업시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업시간에 질문을 하나 던지기라도 하면 따가운 학우들의 눈초리를 받는 우리의 수업환경과는 달리 아무 의견도 말하지 않는 자는 바보가 되는 그런 환경이야말로 신세계의 모습이었다. 수업환경에서 또 하나 크게 놀란 것은 수업시간표내에 정해진 수업시간에 관한 것이었다. 항상

수업시작 5분 전이면 강의실은 수업 준비된 학생들로 꽉 차있었으며 교수님 또한 수업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아무런 차질 없이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미리 완벽한 준비를 해놓으셨다. 누구 하나 크게 잡담을 한다거나, 핸드폰을 만지는 학생들 없이 집중과 긴장상태에서의 수업은 수업 끝나는 제 시간에 딱 맞추어서 끝이 났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 주는 모습이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수업이 모두 끝난 학생들은 주로 함께 모여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학교 내에 여가시설과 운동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위한 행사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누구하나 시간을 마구잡이로 허비하지 않는 듯 했다. 내가 미국 대학생들의 모습에서 가장 크게 감명을 받은 것은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때는 논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학교수업이 있는 주중에는 공부하는 대학생이 되었다가 주말이 되면 자신의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멋진 대학생들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학생으로서 내가 경험했던 생활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 들에 지금까지의 내 모습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다.

University of Northern Iowa가 위치해 있는 아이오와 주는 유색인종의 비율이 다른 주에 비해 훨씬 적은데다가, Cedarfalls 라는 소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 나와 같은 동양인을 접할 기회가 적다. 특히, University of Northern Iowa와 우리나라에서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학교는 순천향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단 두 곳 뿐이라서 한국인이라는 존재자체가 조금은 생소한 존재였다. 이는 유학생의 신분이었던 나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University of Northern Iowa에서는 교환학생들과 ESL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Holiday를 위한 Field trip은 물론, 평소 경험해보기 힘든 다양한 Outdoor program들도 상당히 많았다. 10일 정도의 Spring break 기간 동안에 학교의 Outdoor program을 이용하여 미국 동부에 위치한 Appalachian Mountains(Trail)로 Backpacking trip을 갔었는데 이것이야 말로 내가 언제 경험해 볼 수 있을지 모르는 아주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내가 이용했던 다른 프로그램들에는 Host family와 Conversation Partner가 있었다. Host family는 말 그대로 나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현지인들과 함께 편하게 만남을 갖는 것이었고, Conversation Partner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을 1:1로 관계를 맺어 친구관계를 형성해주는 것이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가족과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정신적 위로가 되었다.

교환학생이라는 것은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물론, 미국 혹은 다른 나라의 대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하여 타국생활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교환학생은 현재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의 등록금을 내고 자신이 원하는 외국의 대학교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더 큰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학교와 학교가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외국 대학으로부터 교환학생으로서 받는 대우 또한 엄청나다. 두 학교의 지속적인 지원 속에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학업을 익히고, 생활을 경험하는 것은 아마 교환학생이 가진 매력적인 장점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빨리 흐

르는 듯 함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부족한 영어실력을 더 보충해서 왔다면 더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은 흘러 흘러 아쉽기만 했던 시간들은 끝이 났고 교환학생으로서 성공적인 생활을 마쳤다. 나에겐 현실을 벗어나 너무 새롭고 행복하기만 했던 기억들 때문이었을까, 마치 너무나도 행복한 꿈을 꾸는 것만 같다. 이 행복의 기운이 앞으로의 내 인생에 있어서도, 교환학생을 준비 중인 후배들에게까지도 잔잔히 퍼져나갈 수 있으면 한다.



(2010 exchange student reception)



(Potluck party)



(2011 Appalachian Mountains(Trail) Backpacking trip)